예언적 저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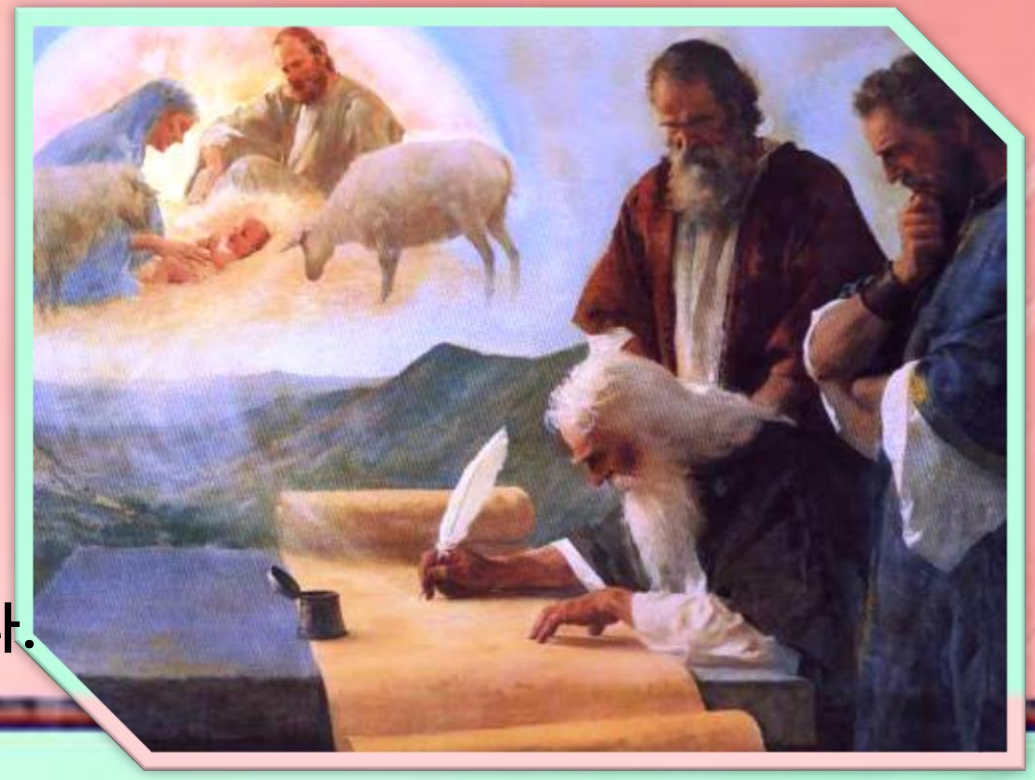


6과. 2026년 11월 7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롬 15:4)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자들에게 단어 하나씩 불러주어 받아 쓰도록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고, 마음을 감동하신 것들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자들에게 어느 정도 선택할 자유를 주셔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 어떤 문체로 쓸지, 그리고 거룩한 기별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예언적 저술:
- 성경은 어디에서 그리고 왜 기록되었나?
- 성경은 어떤 문체로 기록되었습니까?

문장 보조자(비서)나 외부 자료를 사용함 :
- 왜 비서들을 사용했는가?
- 선지자들은 어떤 외부 자료를 사용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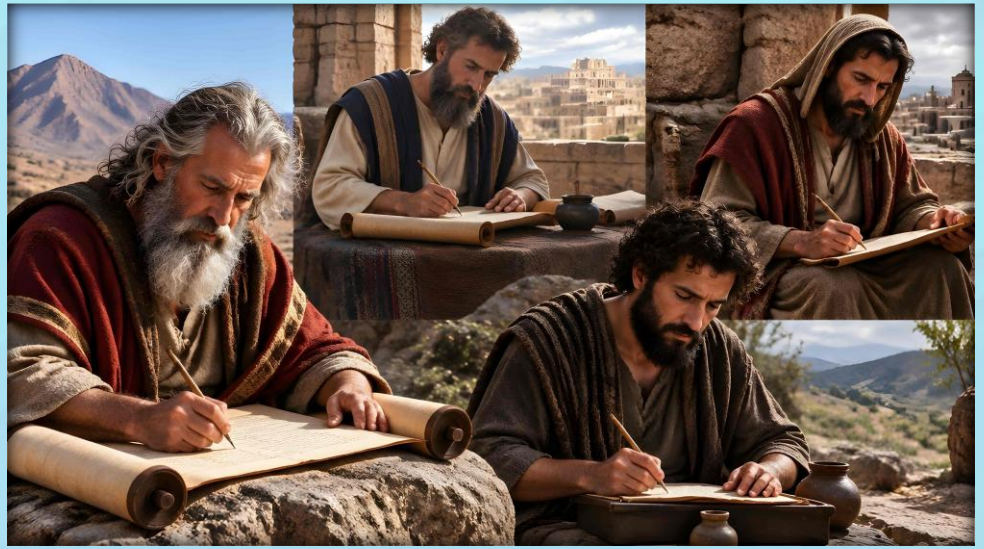
(하나님의 기별)에 깃든 인간적인 요소들 :
- 성경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는가?

예언적 저술

성경은 어디에서 그리고 왜 기록되었나?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사 30:8)

모세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저자였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했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며 겪는 여정을 글로 기록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출 1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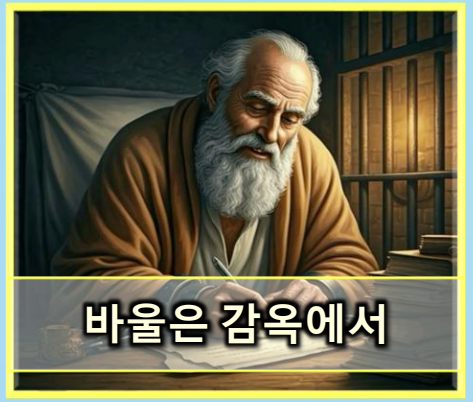
이사야 (사 30:8), 예레미야 (렘 36:2), 하박국 (합 2:2) 그리고 제자 요한(계 1:11)도 성경을 기록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글을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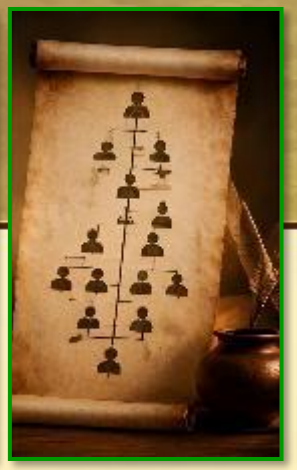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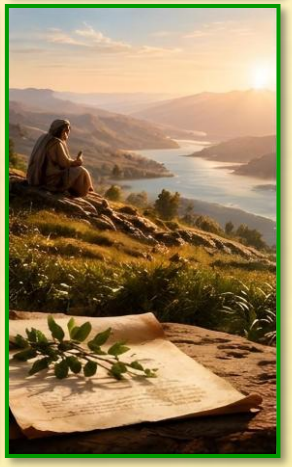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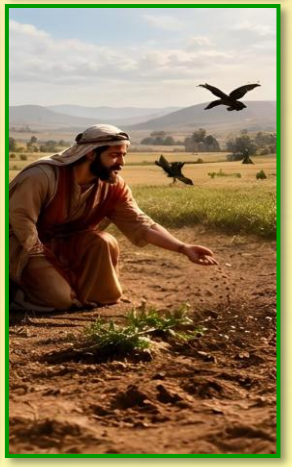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복음에서 어느 한 부분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내용을 기록할 사람들과 말씀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딤후 3:15).

성경은 어떤 문체로 기록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노래중의 노래" (아가 1:1)


1,5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40명이 넘는 저자들은 다양한 문체로 성경을 저술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면:

- 역사적 기록(창. 37:2)
- 족보 (창. 5:1)
- 예언 (사. 13:1)
- 세상 마지막에 대한 환상들 (계. 12:1)
- 시 (대부분의 이사야서)
- 노래 (아가 1:1)
- (문학적) 평행 법 (사. 17:7)
- 비유들 (눅 18:1)
- 편지서들 (살후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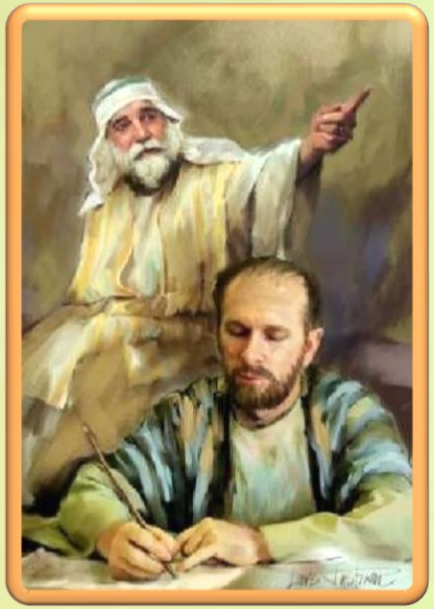
성경에 사용된 다양한 문체들은 서로 높거나 낮은 권위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다양한 문체로 표현되었습니다. 모든 문체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신약성경이 구약성경과 똑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벧후 3:15-16).

문장 보조자(비서)나 외부 자료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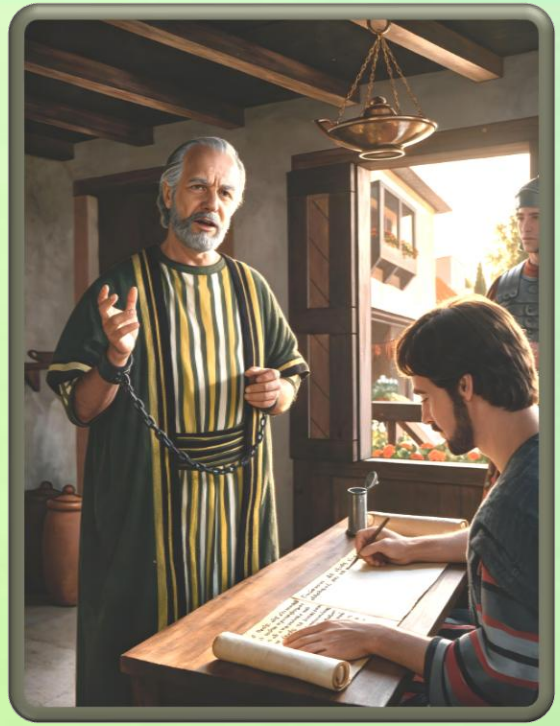
왜 비서(조수)들을 사용했는가?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렘 36:4)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별을 자기 조수 바룩에게 불러주고 그에게 적으라고 시켰습니다(렘 36:1-4). 하나님께서 바룩이 대필하는 것을 승인하셨지만 당시 사람들은 바룩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렘 43:2-3).

그리스어에 능통했던 바울은 조력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편지로 적으라고 했습니다(롬 16:22).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위조 편지를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울은 편지서들에 직접 친필로 서명했습니다 (살후 3:17).





베드로는 수려한 그리스어 문체로 쓴 편지서들을 남겼는데, 아람어를 사용하던 전직 어부였던 사람의 글 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베드로는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완전히 숙달하지 못한 언어로 기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조력자들이 그의 생각을 잘 표현할 단어들 선택했다고 해서, 그의 서신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외부 자료를 사용했는가?

"나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으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눅 1:3)

에스라는 역대서와 에스라서를 집필할 때 역사 기록들을 참고했으며, 페르시아 왕들의 칙령과 서신들도 인용했습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에 기존에 있던 족보 기록들을 그대로 베껴 적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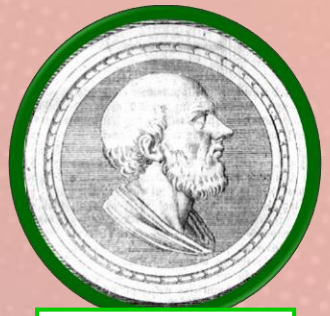


누가는 자신이 현장에 없었던 사건들을 기록할 때 역사 기록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일부를 기록했습니다(눅 1:3).

바울은 고대 그리스 작가, 에피메니데스와 아라토스의 글을 인용했고 (행 17:28; 딛 1:12) 유다는 위경인 에녹서의 내용도 인용했습니다 (유다서 1:14).



에피메니데스



아라토

그들은 이 외부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글로 남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에녹서

(하나님의 기별)에 깃든
인간적인 요소들

성경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는가?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후 4:7)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 질그릇 (고후 4:7) 같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함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성경은 100% 신뢰할 만한 책일까요?

고대 언어

- 히브리어, 아람어 또는 그리스어 단어들 가운데 그 의미를 알 수 없거나, 선지자 시대에는 지금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들
- 예: 고퍼 (גֹּפֶר) (창. 6:14); 셀라 (סֶלָה) (시편에 자주 사용됨)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의 실수

-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는 데 신약성경에서 더 흔하게 발견됨.
- 예: "요한의 콤마" (요일 5:7-8). 한 필사자가 남긴 주석을 후에 다른 필사자들이 본문에 포함시킴

저자 본인들이 저지른 실수들

- 성경 저자들이 과거 일을 기억해내거나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건을 서술할 때, 기별의 핵심이 아닌 사소한 사물들을 잘못 기록할 수 있음.
- 예: 요아스에게 살해당한 스가랴를 '베레갸의 아들'(스가랴서의 저자)이라고 소개함 (마. 23:35; 눅. 11:51; 고후. 24:22)

번역자들의 실수

- 성경 번역자, 특히 현대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교리)에 따라 원문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 예: (MSG, NMB)와 같은 현대어 번역본들은 '주의 날' (계. 1:10)을 일요일로 번역하지만, '주의 날'이라는 단어는 사도들이 모두 죽은 훗날 만들어 짐.

성경의 불완전함이나 서로의 차이점은 극히 드물며, 대부분은 깊은 연구를 통해 해결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거룩한 진리가 수 천년에 걸쳐 우리에게 충실하게 전달되어 왔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도우미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진리를 세상에 전달하기 원하셨으며,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기록할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보물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에게 맡겨졌지만 모두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이 증언은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고 전달되지만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따라서 순종하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증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자신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담은 권위와 오류 없는 계시로 받아야 합니다.”

엘렌 화잇 (대쟁투. 6)

부록: 엘렌 G. 화잇부인의 저술의 무오함(실수나 잘못이 없음)

하나님께서 엘렌에게 자신의 기별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녀는 "저는 글을 쓸 줄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힘을 주셨고,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 쓰는 양이 많아지면서 필사들이 그녀를 도와 맞춤법 오류를 바로잡고 일부 문장의 표현을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녀가 받은 기별의 의미를 변질시키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엘렌은 항상 최종 원고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매리 앤 "마리안" 대이비스 (1847-1904), 문장 비서. 사진제공 "엘렌 화잇 저서 보관회"



사라 E. 펙, 1880. 사진제공 "재림교회 연구센터."



엘렌은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무오성에 대해, "무오성에 관하여 말하자면, 나는 결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오하십니다"(『가려뽑은 기별』 1권, 42쪽).

그녀는 자신의 저술의 무오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해하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며, 일반적인 편지를 적어 보내야 하고,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 작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 그러한 정보는 하나님의 영의 특별한 영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가려뽑은 기별, 3권, 64쪽).

